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전망

KIEP 북경사무소(kucho@kiep.go.kr, Tel: 86-10-8497-2870)



차 례

1. 개요
2. 우크라이나 사태의 중국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
3. 평가 및 전망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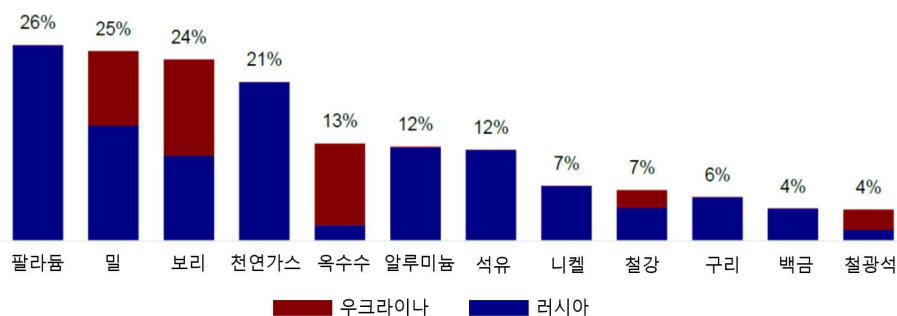
-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경제를 비롯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곡물 등 원자재 수출 대국으로, 이번 사태로 인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화될 전망
 - 개전 이후 미국 등 각국이 러시아에 대해 금융 등 전방위적인 제재를 단행하면서 세계 경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이번 사태에 대해 중국은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경제적 영향이 주요 서방 국가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됨.
-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각국의 대러시아 제재, 세계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중국의 교역 관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세계 각국 및 기업이 대러시아 제재를 단행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면서 위안화 국제화, 러시아 시장 내 점유율 상승 등을 기대하고 있음.
 - 전쟁 발발 직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도 반도체 원자재 공급, 물류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전반적인 생산비용 상승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중국의 대러시아 및 대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은 각각 3.1%와 0.2%에 불과하지만,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상황임.
 - 반면에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 확대, 높은 원자재 자급률로 인해 양국과의 교역관계에서 오는 직접적인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됨.
- 중국 및 글로벌 분석기관 및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IMF는 이번 사태가 세계 경제 질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면서도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수출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될 것으로 예측
 - 중국 내 전문가들도 인플레이션 압력은 우려스럽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

1. 개요

■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양국 간 무력 충돌이 현실화¹⁾

- 2021년 1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접경지역 군사배치로 양국의 긴장감이 고조된 이후, 그동안 국제사회의 전쟁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군사행동을 단행하였음.
- 2월 22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세력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며 사실상 개전을 선언함.
- 미국 및 서방국가들은 전쟁 개시 직후 러시아에 대해 전방위적인 제재를 발표하며 압박하였음.
- 전쟁이 지속되면서 대러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금속, 에너지, 곡물 등 원자재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세계 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됨(그림 1 참조).²⁾
- 금속 광물의 경우, 러시아는 전 세계 수출시장에서 니켈, 팔라듐³⁾은 점유율 1위, 철강은 5위를 차지하고 있어 관련 산업의 공급망에 차질이 우려됨.
- 에너지의 경우, 러시아는 전 세계 수출시장에서 천연가스의 점유율이 21%(세계 1위), 석유의 점유율이 12%(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번 사태가 전 세계 원자재 대란으로 이어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곡물의 경우,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옥수수 수출시장에서 점유율 3위, 밀 수출시장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밀 수출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1.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의 전 세계 주요 원자재 수출비중 (% , 2021년 12월 기준)



주: 해당 값은 품목별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의 수출액/전 세계 수출액'을 의미
 자료:中金点晴(2022. 3. 7).

1) 「乌克兰局势如何步步升级」(2022. 3. 17), 『第一财经日报』.

2) 「中金 | 海外: 俄乌局势对全球供应链影响有多大?」(2022. 3. 7), 『中金点晴』.

3) 고가의 액세서리에 들어가는 귀금속 중 하나이자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 촉매,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원자재 중의 하나임.

■ 이번 사태로 인해 중국경제는 다른 국가보다 더욱 다각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우크라이나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러시아의 전쟁도발을 비판하는 미국 및 유럽국가와 달리 중국은 표면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은 러시아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으면서 이번 사태의 영향이 다른 국가들과 다를 것으로 전망
-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 낮은 대러시아 무역비중 등을 고려하여 중국경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2. 우크라이나 사태의 중국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

가. 각국의 러시아 제재에 따른 영향

■ [국가 단위 제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되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즉각적으로 러시아 제재를 단행함(표 1 참조). 4)

-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평가되는 금융분야에서 각국은 SWIFT⁵⁾ 배제 등 고강도 제재 조치 단행
- 2월 26일 미국과 유럽연합은 국제결제의 80%를 차지하는 결제시스템인 SWIFT에서 7곳의 러시아 은행들을 배제할 것을 발표하며 사실상 국제거래에서 퇴출
- 이에 따라 러시아 기업 및 개인은 국제금융거래에서 대출이나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자금조달이 제한
- 러시아 중앙은행은 해외 외환보유고 접근이 제한되며 그중 달러화와 유로화의 비중은 2021년 6월 기준 각각 16.4%, 32.2%에 달하여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
- 다만 러시아 최대은행 스베르 은행, 에너지 거래 전담인 가즈프롬 은행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에너지 관련 부분은 포함하지 않았지만 전쟁 상황에 따라 추가제재 가능성이 있음.
- 러시아의 해외자산동결, 러시아은행 거래 중지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발표
- 러시아 자산 동결에 미국,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스위스까지 동참하면서 러시아는 일부 해외자산의 활용에 제한이 따를 것으로 전망

4) 「俄乌局势对全球及中国经济的影响分析」(2022. 3. 15), 『泽平宏观』; 「对俄制裁再升级 “禁用SWIFT”影响几何」(2022. 2. 28), 『第一财经日报』.

5)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약자로 국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산망을 의미함.

표 1. 주요 국가들의 러시아 금융제재 내용

제재 목록	제재 국가	제재 내용
SWIFT 배제	미국, EU, 영국, 캐나다	주요 러시아 은행 7곳의 SWIFT 사용 금지
러시아 자산 동결	미국	러시아의 25개 기관이 미국 재무부 제재 대상(SDN)에 포함되어 거래 중지 및 자산 동결
	유럽연합, 스위스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동결
채권발행 및 거래 금지	미국	러시아 주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대상
대출 및 증권 거래 금지	유럽연합	Alfa bank, Bank Otkritie 등 러시아 은행의 대출 및 증권 매매 금지
러시아인의 은행 거래 제한	영국	러시아인은 영국 내 은행 거래시 5만 파운드 이상 거래 금지
러시아 국채 거래 금지	일본,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스위스	러시아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의 거래 금지

주: 2022년 3월 15일 기준 제재사항임. 각국의 대러시아 제재가 지속적으로 추가되면서 변동 가능성이 있음.
 자료: 泽平宏观(2022. 3. 15).

■ [국가 단위 제재]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와 중국의 교역 증가와 위안화 결제 비중 증가가 예상되면서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 러시아가 국제결제 시스템인 SWIFT에서 배제됨에 따라, 중국의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인 CIPS⁷⁾의 역할 확대가 기대되고 있음.
- CIPS는 2015년 중국 인민은행이 개발한 위안화의 국제결제 시스템으로, 2022년 1월 기준으로 국 제결제 시장에서 3.2%를 차지하여 2021년 12월(2.7%)보다 증가하며 위안화 결제 비중은 세계 4위 로 부상⁸⁾
- CIPS를 통한 2021년 거래액은 80조 위안으로 2020년 대비 75% 증가하였으며, 전 세계 103개 국 가에서 사용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임.
- 향후 RCEP, 일대일로 등 국제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CIPS 사용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
- 하지만 CIPS의 거래 규모가 SWIFT의 0.4%에 불과하여 단기적으로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중국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CIPS 참여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위안화의 국제거래 점유율 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측
- 해외 거래 시 달러화 사용이 제한된 러시아는 우호적인 중국의 위안화 비중을 늘릴 것으로 전망
- 러시아 항공사들은 중국에서 급유시 석유기업들과 위안화로 결제할 것을 선언함.⁹⁾

6) 러시아 정부의 대외전문 개발은행(Vnesheconombank), 군사은행(Promsvyazbank) 등이 포함됨.

7) 정식명칭은 위안화 국경간 지불 시스템(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 CIPS)임.

8) 「海通证券：看好人民币跨境支付系统的长期发展」微研报」(2022. 3. 3), 『第一财经日报』.

9) 「俄罗斯多家银行宣布：转向银联！俄去美元化进程或加速？」(2022. 3. 7), 『国际金融报』.

-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등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태를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¹⁰⁾
- 하이통증권 량중화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중러 무역에서 미달러화 결제비중은 2014년 97.1%에서 2020년 22.7%로 감소하였고, 동기간 유로화의 비중이 65.3%로 확대, 위안화도 3.1%에서 17.5%로 증가하였음.¹¹⁾
- 이번 사태로 러시아는 유로화에 대한 접근도 어려워짐에 따라 양국 교역결제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양국의 교역비중은 중국 전체교역의 2~3%, 중국의 대러시아 투자비중도 0.5%에 불과하지만, 향후 양국 간 협력 확대에 따라 교역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존재

■ [기업 단위 제재] 러시아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은 대러 제재에 동참하는 목적으로 러시아 내에서 일시 철수하고 있음.¹²⁾

- 예일대 집계에 따르면 러시아 내 영업 중단이나 철수를 발표한 기업들은 400여 개에 달함¹³⁾
- 맥도날드 등 다국적 요식업체, 스마트폰, 자동차 등 제조업체들도 러시아 내 영업 중단을 선언함.
- 신용카드 결제사인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2020년 기준 점유율이 74%에 달하지만 러시아 영업을 중단하면서 러시아 국민들이 카드를 활용한 결제에 불편을 겪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철수한 외국계 기업들에 대해 국유화조치를 시행할 것이라 강력 경고함.

■ [기업 단위 제재] 다국적기업들이 철수한 자리를 중국기업이 채우며 시장점유율을 늘릴 수 있을지 주목¹⁴⁾

- 애플이 철수한 러시아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기업의 점유율 확대가 기대됨¹⁵⁾
- 2021년 중국기업들의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50%에 육박했으며, 그중 샤오미는 2위를 차지
- 이번 사태 이후 시장점유율 13%로 3위를 차지했던 애플의 철수 및 저가 선호도 증가로, 중국산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브랜드별로 2~3배 증가¹⁶⁾
- 외국계 카드결제 회사들의 영업 중단으로 중국 유니온페이의 점유율 확대를 예상¹⁷⁾
-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영업 중단 이후 러시아연방 저축은행을 포함한 여러 은행들은 유니온페이 지불

10) 「7家俄罗斯银行被踢出SWIFT 对人民币跨境支付系统CIPS是否有影响?」(2022. 3. 3), 『天目新闻』.

11) 「SWIFT制裁: 有哪些影响?」(2022. 3. 3), 『第一财经日报』.

12) 「拉清单: 撤出俄罗斯市场的全球资本」(2022. 3. 5), 『腾讯网』.

13) 「Almost 400 Companies Have Withdrawn from Russia—But Some Remain」(2022. 3. 15), 『YALE School of Management』.

14) 「拉清单: 撤出俄罗斯市场的全球资本」(2022. 3. 5), 『腾讯网』.

15) 「苹果停售, 中国手机难舍俄罗斯」(2022. 3. 5), 『腾讯网』.

16) 「中国智能手机在俄销量大涨」(2022. 3. 16), 『环球时报』.

17) 「俄罗斯多家银行宣布: 转向银联! 俄去美元化进程或加速?」(2022. 3. 7), 『国际金融报』.

시스템을 활용한 카드를 발급하기로 함.

- 하지만 루블화 가치폭락, 러시아 내수시장 침체 등 시장 매력도가 떨어지고 2차 제재 대상의 위험성으로 중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시장공략에 나설지는 미지수¹⁸⁾
- 신타이증권 왕즈웨이 애널리스트는 러시아가 각국의 제재에 대한 대체재로 중국기업을 찾고 있지만, 중국도 미국의 FDPR¹⁹⁾ 등과 같은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할 것을 당부²⁰⁾
-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중국, 인도 등 국가들은 미국의 FDPR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러시아와의 교역에 주의가 필요함.

나. 세계 공급망의 불확실성 증가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이 국제 원자재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전 세계 공급망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각각 1.9%, 0.2%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원자재 공급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세계 공급망에 미칠 파장은 이들의 경제 규모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
-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후 10여일만에 주요 원자재 가격은 최대 111%까지 급등(표 2 참조)
- 니켈의 경우 3월 8일 영국 금속거래소에서 가격급등으로 거래 중단이 선언되었고 16일부터 거래를 재개하고 있음.²¹⁾

표 2.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폭(2022년 3월11일 기준, 2월말 대비)

품목명	상승폭	품목명	상승폭
니켈	+111%	알루미늄	+16%
석탄	+110%	옥수수	+24%
천연가스	+96%	철광석	+21%
석유	+26%	밀	+47%

자료: 泽平宏观(2022. 3. 15).

18) 「Analysis: Chinese brands stay put in Russia for now despite Western exodus」(2022. 3. 7), 『Reu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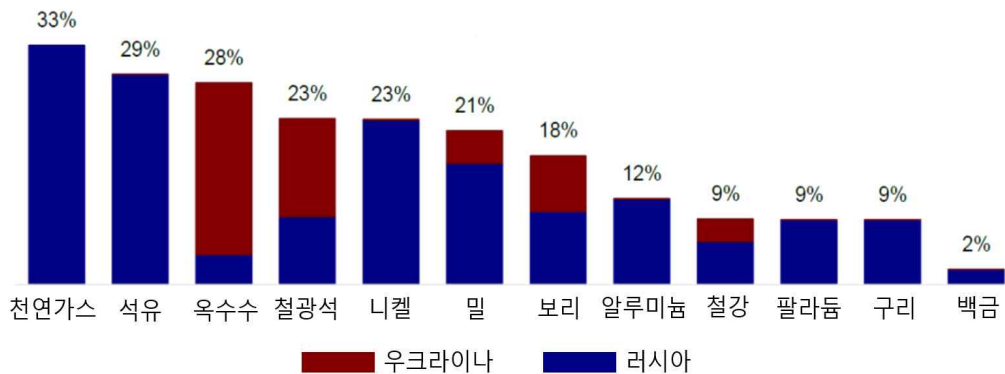
19) 미국의 해외직접생산제품규칙을 의미하며, 미국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러시아 등 특정 국가에 수출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미국 상무부의 규정임.

20) 「俄乌冲突波及半导体产业链：材料供应与芯片制裁博弈加剧」(2022. 3. 5), 『中国经营报』.

21) 「深剖伦镍异常波动背后的原因，开盘后会怎么走？」(2022. 3. 15), 『期货日报』.

- 유럽국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가 커서 이번 사태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함(그림 2 참조).²²⁾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원자재 점유율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시장에서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러시아는 유럽의 에너지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천연가스(33%)와 석유(29%)에 대한 대러 의존도는 절대적인 수준임.

그림 2. 유럽의 대러시아 및 대우크라이나 주요 원자재 수입 비중(% , 2021년 기준)



주: 해당 값은 품목별 '유럽의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수입규모/유럽의 전체 수입규모'을 의미
 자료: 中金点晴(2022. 3. 7).

■ 이에 따라 반도체 등 특정 산업뿐만 아니라 운송비용 등 전반적인 생산비용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

- 반도체 분야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 필수원자재의 공급 차질을 우려하지만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²³⁾
- 양국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네온가스, 팔라듐 등의 주요 생산국가이며, 미국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네온가스의 90%는 우크라이나산, 팔라듐의 35%는 러시아산으로 나타남
- 중국 내 네온가스 가격도 2021년 10월 세제곱미터 당 400위안에서 전쟁 개시 직후 1,600위안까지 상승하며 급등세를 기록함.
- 각 기업들은 재고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발표하며 단기적인 영향은 작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반도체 생산에도 가격상승, 공급 차질 등의 악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 화타이증권은 양국이 공급하는 반도체 원료들이 전체 반도체 공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으며 우려가 현실화되더라도 기업들이 대체공급자를 찾을 것이라 전망²⁴⁾

22) 「中金 | 海外: 俄乌局势对全球供应链影响有多大?」(2022. 3. 7), 『中金点晴』.

23) 「乌克兰占全球氖气产量七成! 地区摩擦或推高芯片产业链成本」(2022. 2. 24), 『第一财经日报』.

-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 세계 물류시스템에도 부담을 미칠 것으로 전망²⁵⁾
- 전 세계 선원들 중 러시아인은 10%, 우크라이나인은 4%로 추산되며, 각국의 러시아 선박 입항금지, 우크라이나인의 참전으로 인한 노동력 이탈 등 해운물류에 차질이 발생
- 세계 각국과 러시아가 상호 본국 영공 통과 금지조치를 내리면서 러시아를 우회하는 항공노선으로 인해 물류비용이 상승
- 이처럼 운송비용 상승은 중국기업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급망에 비용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기존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대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중국은 유럽국가들에 비해 러시아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공급망 충격은 제한적이지만 세계 수요감소, 운송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²⁶⁾

- 유럽은 중국 수출의 10%, 수입의 22.4%를 차지하여 이번 사태로 유럽의 경제적 충격에 따른 수요감소를 우려함.
- 특히 유럽과의 교역화물 중 80%가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므로 운송 대란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열차노선을 통한 교역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으나 이번 사태로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노선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게 되어 유럽과의 교역에 운송난이 가중되고 있음.

다. 중국의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의 교역관계에 대한 영향

■ 중국 정부는 전체 교역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아 상황에 따라 중국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주시하고 있음.²⁷⁾

- 중국의 대러시아, 대우크라이나 교역 비중은 2021년을 기준으로 전체 수출의 3.1%와 0.2%, 전체 수입의 2.9%와 0.4% 수준에 불과
- 중국의 대러시아 및 대우크라이나 교역 비중은 최근 20년을 보더라도 최대 1~2%의 변동폭만을 보여왔으며, 최근 양국으로부터 에너지와 곡물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 비중이 상승(그림 3,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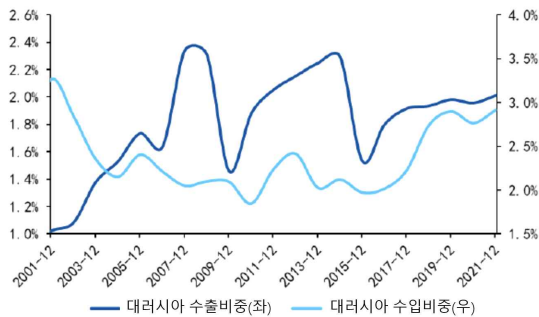
24) 「俄乌冲突波及半导体产业链：材料供应与芯片制裁博弈加剧」(2022. 3. 5), 『中国经营报』.

25) 「俄乌籍船员占全球逾15% ICS提示全球供应链中断风险」(2022. 3. 15), 『中国经营报』.

26) 「俄乌战事如何影响欧中美贸易」(2022. 2. 28), 『环球时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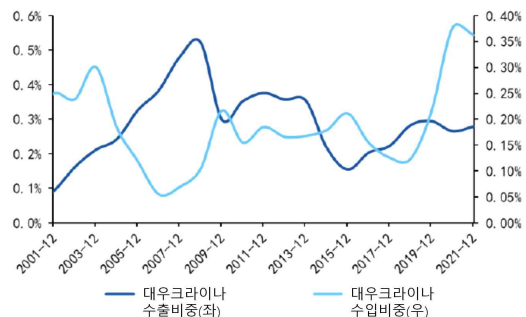
27) 「俄乌冲突对中国贸易和能源供给的可能影响——宏观雷达系列之五」(2022. 2. 26), 『国君宏观研究』.

그림 3. 중국의 대러시아 교역 비중 추이
(2001~2021년)



자료: 国君宏观研究(2022. 2. 26).

그림 4. 중국의 대우크라이나 교역 비중 추이
(2001~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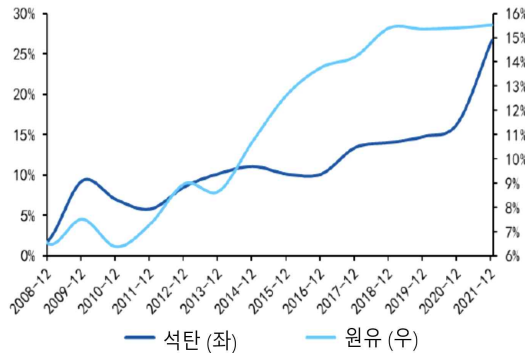
자료: 国君宏观研究(2022. 2. 26).

-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증가율은 러시아 GDP 성장률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으며, 이번 사태로 인한 대러시아 수출 규모의 증감 여부는 유동적임.
- 2014년 미국의 대러 제재 당시에 러시아의 GDP 성장률은 -2.5%였으며, 같은 해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증가율은 -35.2%를 기록
- 이번 미국 및 서방국가의 대러시아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증가율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하지만 대러시아 제재로 타국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중국기업의 점유율 상승이 전망되어 실제 수출량 추이는 지켜볼 필요가 있음.
- 하지만 낮은 러시아와의 교역 비중으로 인해 중국의 전체 수출 규모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원자재 대란의 발생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중국의 원자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

-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원자재 및 농산물 수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²⁸⁾
- 원유 수입 중에서 러시아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2012년 9%에서 2021년 16%까지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석탄 수입 비중도 최근 1년간 14%에서 25%로 급증(그림 5 참조)
- 우크라이나산 옥수수와 보리의 수입비중은 각각 29%와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두유 수입 비중은 18%에 달함(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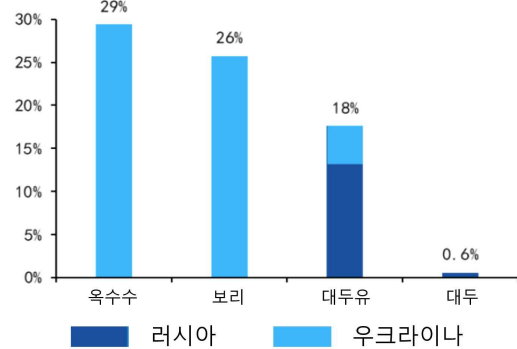
28) 「俄乌冲突对中国贸易和能源供给的可能影响——宏观雷达系列之五」(2022. 2. 26), 『国君宏观研究』.

그림 5. 중국의 러시아산 자원 수입 비중 추이
(2008~2021년)

주: 해당 값은 '러시아산 석탄(원유) 수입액/전체 석탄(원유) 수입액'을 의미

자료: 国君宏观研究 (2022. 2. 26)

그림 6. 중국의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비중 추이(2021년 기준)



주: 해당 값은 품목별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수입액/전체 수입액'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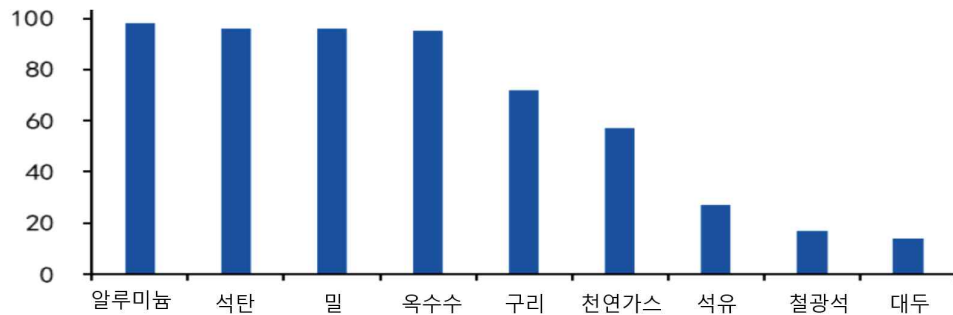
자료: 国君宏观研究 (2022. 2. 26)

-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의 밀월관계로 러시아산 원자재 공급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중국 내 에너지 수급은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²⁹⁾
 -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푸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10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 10년간 1억 톤의 석유 공급을 발표함.
 -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금지를 발표한 가운데 3월 1일 러시아는 동시베리아-태평양 석유관을 통해 중국으로의 석유 공급량을 2022년 2월 222만톤에서 3월 248만톤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함.
 - 양국은 대금지불도 위안화를 이용하여 서방국가들의 제재와 무관하게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시베리아의 힘' 2기 가스관 건설 등 관련 인프라를 늘리려면 단기간에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어려운 것으로 전망
- 이번 사태가 중국 내 공급망 불안이나 물가 상승을 초래할지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³⁰⁾
 - 대두,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실제 공급충격은 크지 않기 때문에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임.
 - 자급률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국제 원자재가격이 요동치더라도 국내 가격을 안정적으로 통제 가능하므로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음.
 -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높은 옥수수도 중국의 자급률이 95% 이상이므로 이번 사태가 식량 안보 위기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그림 7 참조)

29) 「普京出席冬奥会背后：中俄1亿吨油、100亿方气大单落定，金额千亿」(2022. 2. 9), 『华夏能源网』; 「俄罗斯石油将增加对中国市场的供应，中国允许从俄全境进口谷物」(2022. 3. 2), 『BWC中文网』.

30) 「『国君宏观』俄乌冲突下的输入性通胀风险有多大——宏观雷达系列之八」(2022. 3. 7), 『国君宏观研究』.

그림 7. 중국 주요 원자재 자급률(2021년 기준)



자료: 国君宏观研究(2022. 3. 7).

3. 평가 및 전망

■ IMF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³¹⁾

- 이번 사태는 크게 3가지 경로를 통해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임.
 - 향후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심화 및 실질소득 하락으로 글로벌 수요 감소가 예상
 -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에서는 피란민, 공급망 차질 등으로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
 -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위축과 투자 불확실성 증가로 신흥국에서의 하방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IMF는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지만 장기화될 경우 중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함.
 - 중국은 재정 확대를 통해 경기회복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
 - 또한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 비중이 크지 않은 점도 이번 사태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의 근거로 작용
 - 다만 전 세계 인플레이션 압력과 이로 인한 수요 감소는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경제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

■ 중국 내 전문가 및 국가기관도 우크라이나 사태의 중국경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다수임.

- 북경대 린이푸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해 목표 경제성장률 5.5% 달성을 예상³²⁾

31) 「How War in Ukraine Is Reverberating Across World's Regions」(2022. 3. 15), 「IMF」.

-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중국경제에 부담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전 세계 경제에 모두 악영향
- 그중국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충분히 높아 향후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
- 국가통계국 푸링후이 대변인은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은 우려³³⁾
- 중국의 전체 교역 중에서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 추세이지만 국내 발전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제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
- 코로나19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에도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며 외부충격은 통제가능하다고 평가함. **KIEP**

[참고자료]

1. 중문 참고자료

- 「【国君宏观】俄乌冲突下的输入性通胀风险有多大——宏观雷达系列之八」, 2022. 『国君宏观研究』(3. 7).
- 「7家俄罗斯银行被踢出SWIFT 对人民币跨境支付系统CIPS是否有影响?」, 2022. 『天目新闻』(3. 3).
- 「SWIFT制裁: 有哪些影响?」, 2022. 『第一财经日报』(3. 3).
- 「对俄制裁再升级 “禁用SWIFT”影响几何」, 2022. 『第一财经日报』(2. 28).
- 「俄罗斯多家银行宣布: 转向银联! 俄去美元化进程或加速?」, 2022. 『国际金融报』(3. 7).
- 「俄罗斯石油将增加对中国市场的供应, 中国允许从俄全境进口谷物」, 2022. 『BWC中文网』(3. 2).
- 「俄乌冲突波及半导体产业链: 材料供应与芯片制裁博弈加剧」, 2022. 『中国经营报』(3. 5).
- 「俄乌冲突对中国贸易和能源供给的可能影响——宏观雷达系列之五」, 2022. 『国君宏观研究』(2. 26).
- 「俄乌籍船员占全球逾15% ICS提示全球供应链中断风险」, 2022. 『中国经营报』(3. 15).
- 「俄乌局势对全球及中国经济的影响分析」, 2022. 『泽平宏观』(3. 15).
- 「俄乌战事如何影响欧中贸易」, 2022. 『环球时报』(2. 28).
- 「国家统计局: 俄乌冲突对中国经济直接影响有限」, 2022. 『中国新闻网』(3. 15).
- 「海通证券: 看好人民币跨境支付系统的长期发展」, 2022. 『第一财经日报』(3. 3).
- 「拉清单: 撤出俄罗斯市场的全球资本」, 2022. 『腾讯网』(3. 5).

32) 「林毅夫认为: 俄乌局势难阻中国快速发展」(2022. 3. 11), 『参考消息网』.

33) 「国家统计局: 俄乌冲突对中国经济直接影响有限」(2022. 3. 15), 『中国新闻网』.

- 「林毅夫认为：俄乌局势难阻中国快速发展」. 2022. 『参考消息网』(3. 11).
- 「苹果停售，中国手机难舍俄罗斯」. 2022. 『腾讯网』(3. 5).
- 「普京出席冬奥会背后：中俄1亿吨油、100亿方气大单落定，金额千亿」. 2022. 『华夏能源网』(2. 9).
- 「深剖伦镍异常波动背后的原因，开盘后会怎么走？」. 2022. 『期货日报』(3. 15).
- 「乌克兰局势如何步步升级」. 2022. 『第一财经日报』(3. 17).
- 「乌克兰占全球氖气产量七成！地区摩擦或推高芯片产业链成本」. 2022. 『第一财经日报』(2. 24).
- 「中国智能手机在俄销量大涨」. 2022. 『环球时报』(3. 16).
- 「中金 | 海外：俄乌局势对全球供应链影响有多大？」. 2022. 『中金点睛』(3. 7).

2. 영문 참고자료

- 「Almost 400 Companies Have Withdrawn from Russia—But Some Remain」. 2022. 『YALE School of Management』(3. 15).
- 「Analysis: Chinese brands stay put in Russia for now despite Western exodus」. 2022. 『Reuter』(3. 7).
- 「How War in Ukraine Is Reverberating Across World's Regions」. 2022. 『IMF』(3. 15).

자료 정리: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김동현
(brenzel@naver.com)